「지방정부연구」 제24권 제4호(2021 겨울): 1-28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4 No.4 (2021 Winter)
http://dx.doi.org/10.20484/klog.24.4.1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 도 희

국문요약

최근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1인 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새롭게 부각되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무엇인지, 성별, 연령별에 따른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인가구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맞춤형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1인가구의 특성을 1인가구의 변화추이와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생활 환경적적 특성(주거, 안전,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산업도시인 만큼 일자리 부족, 경기 침체 등에 따른 1인가구의 변화추이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남성 1인가구의 비중이 훨씬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의 경제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인가구의 지원정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제어: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울산광역시, 행정수요, 주거안전

Ⅰ. 서론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극복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쉽게 인구 증가 현상을 보이지 않고, 고령화의 진행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함께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사회현상 중의 하나를 꼽는다면 1인 가구의 증가이다. 최근 사회의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양식, 주거, 복지, 경제, 교통, 문화, 관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이후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긴 하였으나 주로 노인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단절, 우울증, 자살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기태·박봉길, 2000; 남기민·정은경, 2011; 이정관·김준현, 2013; 이지숙, 2009; 김윤영, 2018:3). 다음으로는 1인 가구의 주택수요에 초점을 맞춘 주거문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조주현·김주원, 2010; 김진영, 2013; 한지희·윤정슉, 2011; 정소이

외, 2012; 김윤영, 2018; 김병석, 2019:70).

2000년의 인구 총 조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약 220만 가구였다. 이는 전체 가구의 15.4%의 비율을 차지하는 정도이다.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2018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명확해진다(김원종, 2018). 2018년 기준 1인 가구 비율은 29.3%(584만 9000가구)다. 이는 2016년 27.9%, 2017년 28.6%에서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인 가구는 새롭거나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미 가구 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현상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1인 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정부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예측되는 사회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노인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여성 1인 가구, 남성 1인 가구, 이주민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인 가구에 대한 정부 정책은 거주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지역의 1인 가구 특성과 추이 과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부터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롭게 부각되는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무엇인지, 성별, 연령별에 따른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부각되고 있는 '안전'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한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범죄에 취약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정부의 대응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이 모색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분석된 연구에 의하면 1인 가구가 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 다인 가구에 비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강지현, 2017).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제기되는 안전 문제로는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30대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보영, 2018:222). 1인 가구는 대부분 직업을 가지고 있고, 외출 시 반려동물을 집에 혼자 남겨둘 때 발생될 수 있는 안전 관련 위험 문제가 존재한다. 과거 1인 가구의 증가와 관련해서는 주거 환경의 열악함, 1인 가구의 소득이 낮은 경제 문제, 1인 가구의 건강 문제에 대해 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반려동물의 수는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 관련 문제에 대책마련은 시급하다.

이와 함께 1인가구에 대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맞춤형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1인가구의 특성을 1인가구의 변화추이와 인구학적 특성(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생활 환경적적 특성(주거, 안전,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도시인 만큼 일자리 부족,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남성 1인가구의 비중이 높고, 여성 1인 가구 역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저조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인가구의 지원정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한 1인가구 맞춤형지원정책 추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정부의 과제에 대해 제시하기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1인가구의 발생배경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인 가구의 발생배경을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인 요인, 교육적 요인 등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면, 고용시장의 불안정성과 비정규직의 확대, 취업난에 따른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해 만혼 또는 비혼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전체적인 고용구조가 악화되면서 청년세대는 실업상태, 취업 준비,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 불안정 일자리를 반복하며 노동시장에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게 되면서 1인가구가 형성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개인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삶의 의미에 대한 가치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개인화는 Beck & Beck-Gernsheim(2001)에 의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든 발생할 수 있고, 개인 간의 전통적인 관계가 해체되거나 또는 개인이 자신에게 보다 적합한 생활방식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사회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면 전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필요에 의한 공동체로 연대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이해관계, 경험, 계획 등에 의해 가족이 점점 선택적인 관계로 되어가고 있다(홍승아 외 4인, 2017:26). 청년층의 만혼화, 비혼, 출산기피 등의 현상과 관련하여 이들의 가족 관련 가치 및 태도의 특성과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호정화, 2014; 이순미, 2016; 장민선, 2016) 등을 보더라도 청년층의 가족가치관이 전반적으로 탈전통화되는 경향을 보였고, 결혼의 필요성이나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당위적 규범이 최근에 올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 역할 수행의 어

려움과 부담이 크게 작용하여 개인화의 성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여성은 다소 개방적이고 평등지향적인 가족의식을 갖고 있지만 현실의 가족주의에서는 이것을 주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과 가족을 멀리하고, 가족을 형성하기 어려워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홍승아 외 4인, 2017:12).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역시 1인가구 발생과 증가 현상에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늦추는 경우가 많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하면서 싱글 라이프를 즐기는 경우도 있다. 40-50대의 중년 세대들은 이혼 또는 사별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많고, 60대 이상의 노년 세대들은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의 분가 등으로 인해 홀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장민선, 2016:464).

1인가구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교육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젊은 층들은 학교, 직장과 같이 자신의 꿈을 위해 가족의 곁을 떠나 1인가구로 지내는 세대가 늘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경우 보다 좋은 교육환경과 취업 준비를 위하여 타 지역으로 주거 이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요인으로 인하여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다(임준정, 2019:10).

2.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

1인가구의 증가는 더 이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가구 형태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은 부모와 2명의 자녀로 이뤄진 4인가구였다. 그러나 2010년 2인 가구가 24.9%로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5년이 지난 2015년 1인가구는 27.2%로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했다. 2018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29.3%(584만 9000가구)다. 연령별로 보면 1인가구는 70세 이상 18.3%, 20대 17.4%, 30대 17.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김창연, 2020:26-27).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가구추계'를 보면 2035년에는 미혼, 사별, 이혼 등으로 1인가구가 대세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1인가구가 주된 가구형태로 부상함에 따라 가족 중심의 복지정책을 개인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정부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1인가구의 특성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왜 필요한 지, 그리고 1인가구에 대한 일률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공감이 갈 것이다. 1인가구는 세대별, 성별, 상황별에 따른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고, 계층별 인구학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역시 중점적인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어 1인가구 내에서도 정책수요가 매우 이질적이므로 집단별 특성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1인가구의 특성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보기로 한다.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분야는 주거, 안전, 경제, 건강·복지·문화, 사회참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주거에 대해 살펴보면, 1인가구 확산에 따라 그에 걸맞은 주거형태가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주거공급의 한계와 안전성의 미확보로 주거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면서 사회전체의 주거 열화가 1인가구를 통해 가속화되고 있다(문정희 외 11인, 2017:17).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개인의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1인가구 내에서도 여성 1인가구가 다인 가구 및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홍승아 등(2017)의 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주거 관련 정책지원에 대한 요구도에 있어 '1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아파트 우선권 부여(55.2%),' '1인가구 주거 안전체계 마련(39.9%),' '보안이 잘 된 원룸형 주택 보급(34.4%)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주거와 관련해서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현재의 주거형태 및 지역이 혼자 살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1인가구는 노년층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자가 비율이 낮고,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주건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김정은·정해은·남영주, 2018; 468).

다음으로는 안전에 대한 분야로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2017)에 따르면, 여성의 50.9%가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은 '범죄발생(37.3%)', '국가안보(16.5%)', '경제적 위험(13.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남성들은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을 '국가안보(22.2%)', '범죄발생(21.9%)', '경제적 위험(17.5%)'의 순으로 꼽았다. 이처럼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성1인가구는 범죄의 희생자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집단이며, 사회의 안전에 대해 느끼는 인식수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여성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1인가구의 범죄 피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이 시급해 보인다. 1인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범죄피해에 취약한 것은 이미 여러 연구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Cohen and Felson(1989)의 연구와 강지현(2017)의 연구에서 한 가구의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범죄피해율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셋째, 경제 관련 1인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1인가구 가운데 청년층과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 1인가구의 빈곤율은 2011년 12%대에서 2014년에는 21.2%까지 증가하였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2014년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독거노인 가구를 포함한 1인가구에 대한 빈곤 감소효과가 확대되었지만 아직까지 빈곤감소효과는 1인가구보다 2인 이상 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성별로 보면 여성 1인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문정희외 11인, 2017:30).

넷째, 건강에 대한 분야에서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개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1인가구와 여성 1인가구는 건강 측면에 있어서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사례가 많고, 혼자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대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식생활, 영양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은·정해은·남영주, 2018; 469). 우리 사회의 고독사는 급속한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고독사가 독거노인에게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에게서 발생이 증가하면서 고독사 위험군으로 중장년층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고독사 발생 연령층은 점점 낮아져 청년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박미현, 2019:86).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1인가구는 우울 등 심리정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식습관과 불균형한 영양섭취 등으로 신체적인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오유진(2017)에 의하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자살생각, 우울의심율, 만성질환율, 외래진료경험율 등에서 위험도가 높으며, 주로 혼자 식사를 하기 때문에 영양불균형, 비만의 위험성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권미영(2018)의 연구에 의하면, 1인가구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음주를 주로 선택하며, 음주행위를 통제하거나 행위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폭음경험이 높게 나타나며, 최근 1인가구 및 '혼술'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에서의 폭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로움 또한 1인가구로 살아가는 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건·김연재(2106), 홍승아외 4인(2017), 남승연·정수연(2017) 등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사회참여에 대한 것으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1인가구는 소비나 의사소통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대면을 통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권미명, 2017:88).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 만큼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느낄 때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개인의 자아실현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1인 가구는 실제 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사회적 고립이나 소외로 인한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은·정해은·남영주, 2018; 469). 우리나라 1인가구의 외로움을 보면 연령에 따라 젊을수록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다. 20대 응답자의 40%는 항상(7'%) 또는 자주(33%)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하였고, 30대(29%), 40대(24%), 50대(20%), 60대(17%)가 순을 보였다(신동아, 2018; 이상, 2018:71).

3. 선행연구 및 연구의 분석틀

1인가구의 증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나 주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9'에 따르면 제 세계에서 1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북유럽 국가들로 2017년 기준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의 1인가구 비중은 각각 47.5%, 43.5%, 41.7%에 달한다. 일본은 34.5%,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27.9% 수준이다(김창연, 2020:27). 이처럼 1인가구 증가현상이 특이한 사회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구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1인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인가구에 대한 연구동향을 보면, 주로 많이 연구된 분야가 주거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조주현·김주원(2010), 지규현·신상영·권주안·김학렬·이동환(2010), 신미림·남진(2011), 이재수·양재섭(2012), 이경애·조주현(2013), 고정희(2019)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1인가구의 거주지 분포변화를 살펴보면서 1인가구의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등과 같은 거처 유형별 분포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정훈(2012)의 연구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이주영(2013)의 연구는 울산시를 대상으로 1인가구 주거실태분석을 하고 있다. 또한 청년1인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유주거 정책의 추진을 한승연(2019)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고, 임준정(2019)의 연구에서는 청년 1인가구 선호 주거환경에 대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1인가구의 경제상태 및 건강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김혜영 외(2007), 변미리 외(2008), 김보람(2016), 장진희·김연재(2016), 김윤영(2018), 송혜림 외(2018) 등이 연구에서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상태가 열악하고, 주로 혼자 생활하면서 불규칙적인 식습관,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 심화 등의 문제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청년 1인가구, 노인 1인가구 등 연령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함께 많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남성 1인가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정부지원 정책이 필요한 부분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진희·김연재(2016)의 연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여성 1인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주혜진(2017)의 연구에서는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현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정해은·남영주(2018)의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이영란(2013)의 연구에서는 울산시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최근 새로운 관심분야로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승연·강미선(2018)의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여성안심주택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장재원·이지원(2019)의 연구에서는 여성 1인가구 대한 범죄 발생에 도시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강지현(2019)의 연구, 유진·한민경(2018)에서도 1인가구의 범죄로 부터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안전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1인가구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람이 없는 동안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위험과 같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로 오보영(2018), 김영주·변유정·차승은(2018)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1인가구의 연구가 1인가구의 특성 중 하나의 욕구에 기반한 분석을 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의 형태가 다양하고, 이들에 의해 제기되는 생활적 수요 역시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있어 다양한 수요에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과제 분석을 위해 다음의 연구의 분석틀에 의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울산광역시의 1인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부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울산광역시에 주로 형성하고 있는 1인가구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1인가구의 특성을 크게 인구학적 특성과 1인가구의 생활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1인가구의 변화추이와 성별, 연령별 현황과 성별, 연령별의 수요파악, 혼인상태별 현황과 수요 파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활환경적 특성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거, 경제, 안전, 건강, 사회참여적인 측면에서의 울산지역 1인가구의 실태분석을 주로 하고자 한다.

〈표 1〉 연구의 분석틀

분석변수	하위변수
1인가구의 변화 추이 및 인구학적 특성	1인 가구 변화추이
	성별·연령별 차이
	혼인상태별 차이
1인가구의 생활환경적 특성	주거(주거형태, 주거점유형태)
	경제(경제활동실태)
	안전(범죄로 부터의 안전성, 반려동물과 동거로 인한 사고 위험성)
	건강(심리상태, 건강상태, 만성질환 진단여부)
	사회참여

Ⅲ. 울산광역시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

1. 1인가구 현황 및 추이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인가구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1990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9%에서 1995년 12.7%,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 2015년 27.2%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00년대 들면서는 1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5년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다. 2017년 기준 전국 1인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8.6%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변화 추이(2000-2017)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7년
1인가구	15.5	20	23.9	27.2	28.6
2인가구	19.1	22.2	24.3	26.1	26.7
3인가구	20.9	20.9	21.3	21.5	21.2
4인가구	31.1	27	22.5	18.8	17.7
5인 이상	13.4	10	8.1	6.4	5.8

자료: 통계청(2018),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 및 특성에서 발췌한 내용을 재구성.

전국에서 일반가구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은 2015년 3개 지역(강원, 전남, 경북)에서 2017년 9개 지역(서울,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으로 증가하였다(통계청, 2019; 권진아, 2019:14).

또한 1인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연령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국 연령에 따른 1인가구의 전체 현황은 70세 이상이 18.3%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29세 17.4%, 30-39세 17.0%, 50-59세 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황혼 이혼, 사별, 자녀 분가 등의 이유로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좀 더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청년인구의 증가 현상이다. 청년들의 경우 자발적·비자발적인 이유로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발적 요인 즉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망설이는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들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결혼 회피 현상으로 인해 1인가구를 고수하는 비율도 적지 않다. 정부는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자발적 요인과 비자발적 요인에 근거한 정부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1인 가구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별의 경우 여성은 50.3%, 남성은 49.7%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연령별 1인 가구의 분포를 보면, 여성 1인가구는 70세 이상이 2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60-69세 17.1%, 20-29세 16.2%의 순을 보였다. 이에 반해 남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30-39세가 21.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이 40-49세 18.8%, 20-29세 18.7%, 50-59세 18.75의 순을 보였다. 〈표 3〉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듯이, 여성은 60-70대 노년기에 해당하는 연령층이 1인가구를 많이 형성하고 있었고, 남성은 30-50대의 중·장년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고령화에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배우자 사별로 인해 1인가구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20대의 1인가구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는 중·장년층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불안으로 인한 결혼 포기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가족해체 등이 1인가구 발생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배제할 수가 없다. 청년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에는 자발적 요인과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요인에 의해 1인가구가 증가 현상에 대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표 3〉 성별·연령별 1인 가구 현황

(단위: 천 가구, %)

연령	2018			
	일반가구	전체	성별	
			여자	남자
합계	19.979 (100.0)	5,848 (100.0)	2,942 (50.3)	2,906 (49.7)
20세 미만	62 (0.3)	58 (1.0)	31 (1.0)	28 (1.0)
20-29세	1,423 (7.1)	1,020 (17.4)	477 (16.2)	543 (18.7)
30-39세	3.166 (15.9)	992 (17.0)	355 (12.1)	637 (21.9)
40-49세	4,329 (21.7)	864 (14.8)	318 (10.8)	546 (18.8)
50-59세	4,766 (23.9)	974 (16.7)	431 (14.7)	543 (18.7)
60-69세	3,344 (16.7)	869 (14.9)	503 (17.1)	366 (12.6)
70세 이상	2,885 (14.4)	1,069 (18.3)	825 (28.1)	243 (8.4)

자료: 통계청(2019), 2018「인구총조사」; 권진아(2019), p. 15.

2. 울산광역시 1인가구 특성

1) 울산광역시의 1인가구 변화추이

울산광역시의 가구원수별 가구 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인가구수는 42,532가구로 1인가구의 비율이 13.9%였다. 10년 후인 2010년을 보면, 1인가구수는 총 77,421가구로 전체 가구의 20.7%를 차지한다. 그리고 2019년에는 1인가구수가 총 116,015가구로 의 비율이 26.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7대도시 1인가구수 및 비율에서 보여주듯이 7대도시 모두 2019년 현재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10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1인가구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는 2035년이 되면 울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인가구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에는 40%이상인 지역(강원)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장임숙, 2019:19). 울산광역시도 1인가구 변화추이를 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는 주된 가구유형이 부부+자녀 가구이나, 2035년부터는 1인가구가 30.2%로 주된 가구유형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보인다. 2045년에는 17개 시·도에서 모두 1인가구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권진아, 2019:17).

〈표 4〉 7대도시 1인가구수 및 비율

(단위: 가구, %)

구분	2000년			2010년			2019년		
	총가구수	1인가구수	1인가구 비율	총가구수	1인가구수	1인가구 비율	총가구수	1인가구수	1인가구 비율
서울	3,085,936	502,245	16.3	3,504,297	854,606	24.4	3,896,389	1,299,787	33.3
부산	1,120,186	154,237	13.8	1,243,880	290,902	23.4	1,377,030	423,227	30.7
대구	759,351	107,913	14.2	868,327	192,472	22.2	958,620	284,416	29.6
인천	747,297	97,127	13	918,850	190,882	20.8	1,120,576	297,865	26.5
광주	408,527	60,207	14.7	515,855	122,506	23.7	587,159	182,364	31.0
대전	413,758	62,742	15.2	532,643	134,938	25.3	609,043	205,165	33.6
울산	306,714	42,532	13.9	373,633	77,421	20.7	437,094	116,015	26.5

자료: 통계청(2020),「인구총조사」

울산광역시 5개 구·군별 1인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울산광역시의 1인가구는 남구가 38,328가구로 5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인 33.0%를 차지하고 있다. 다름으로는 중구가 20.1%, 울주군이 19.4%, 동구 13.9%, 북구가 13.6% 등의 순을 보이고 있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별 1인가구 현황에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는 사안은 5개 구·군 중 북구가 가장 1인 가구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청의 2018년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1인가구 비율이 12.8%였던 것이 2019년에는 13.6%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증가율은 5개 구·군 증 가장 큰 비율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표 5〉 울산광역시 자치구별 1인가구 현황(2019년)

(단위: 가구, %)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110,236(2018년)	22,515	36,493	15,946	14,087	21,195
100.0(2018년)	20.4	33.1	14.5	12.8	19.2
116,017(2019년)	23,375	38,328	16,078	15,728	22,508
100.0(2019년)	20.1	33.0	13.9	13.6	19.4

자료: 통계청(2020),「인구총조사」

2) 1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1) 성별·연령별

1인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연령별, 혼인상태별의 측면에서 울산지역 1인가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성별·연령별 1인가구의 지역적 특성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7대도시 1인가구 현황과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 6〉에서 보여 주듯이 울산은 남성 1인 가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대전, 인천도 여성 1인가구에 비해 남성 1인가구가 많기는 하나 여성 1인가구와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울산은 2010년에 여성 1인가구보다 남성 1인가구가 6.8% 정도 많으나 2019년에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남

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보다 10.8%정도 더 많다. 따라서 울산은 1인가구에 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남성 1인가구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감안하여 정책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표 6〉 7대도시 성별 1인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2010년					2019년				
	남		여		계	남		여		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서울	404,576	47.3	450,030	52.7	854,606	611,561	47.0	688,226	53	1,299,787
부산	124,784	42.9	166,118	57.1	290.092	191,796	45.3	231,431	54.7	423,227
대구	83.793	43.5	108,679	56.5	192,472	131,500	46.2	152,916	53.8	284,416
인천	97,907	51.3	92,975	48.7	190,882	155,137	52.1	142,728	47.9	297,865
광주	58,863	48	63,643	52	122,506	91,221	50.02	91,143	49.98	182,364
대전	67,763	50.2	67,175	49.8	134,938	104,803	51.08	100,362	48.92	205,165
울산	41,341	53.4	36,080	46.6	77,421	64,303	55.4	51,712	44.6	116,015

자료: 통계청(2020), 2010, 2019 「인구총조사」

울산광역시의 구·군별 1인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5개 구·군 모두에서 남성 1인가구가 여성 1인가구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5개 구·군중에서도 동구와 북구가 남성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울산은 제조업 중심 도시로 근로자들이 많은데 특히 동구와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 지역에 남성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7〉 성별에 따른 전국 및 울산광역시 구·군별 1인가구의 분포(2019)

(단위: 가구, %)

구분		남자		여자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전국		3,053,733	49.7	3,093,783	50.3
울산광역시	전체	64,303	55.4	51,712	44.6
	중구	12,036	51.5	11,339	48.5
	남구	20,611	53.8	17,717	46.2
	동구	9,596	59.7	6,482	40.3
	북구	9,476	60.2	6,252	39.8
	울주군	12,584	55.9	9.922	44.1

자료: 통계청(2020), 2019 「인구총조사」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및 구·군의 1인가구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 현황과는 달리 50-5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 전국의 경우 30-39세에 해당하는 1인가구가 16.8%로 가장 높은 반면, 울산은 50-59세에 해당하는 1인

가구가 19.5%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연령에 따른 전국 및 울산광역시 구·군별 1인가구의 분포(2019)

(단위: %)

구분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전국		1.0	18.2	16.8	14.2	16.3	15.2	18.4
울산 광역시	전체	0.8	14.1	17.3	16.9	19.5	17.1	14.3
	중구	0.5	10.3	13.9	15.5	21.0	21.4	17.4
	남구	1.4	19.4	17.6	16.3	18.4	15.4	11.5
	동구	0.5	11.7	20.4	18.6	19.4	17.0	12.4
	북구	0.5	14.6	22.1	19.2	18.4	13.4	11.8
	울주군	0.6	10.3	14.8	16.7	20.6	18.3	18.8

자료: 통계청(2020), 2019「인구총조사」

(2) 혼인상태별

전국의 1인 가구 혼인상태를 보면, 미혼 43.8%, 사별 29.4%, 이혼 15.5%, 배우자 있음 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광역시도 전국 추이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의 혼인상태는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전국 및 울산광역시 모두 미혼인 1인가구가 각각 43.8%, 43%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지만 1인가구인 경우가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구·군별로 보면 울주군은 사별로 인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전국 및 울산광역시 구·군별 1인가구의 혼인상태

(단위: %)

구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국		43.8	11.2	29.4	15.5
울산 광역시	전체	43.0	14.6	24.5	17.9
	중구	36.5	12.0	29.8	21.7
	남구	49.1	13.4	18.2	19.3
	동구	51.7	14.9	19.7	13.7
	북구	44.6	15.3	25.0	15.1
	울주군	30.8	19.2	33.9	16.1

자료: 통계청(2019), 2015 인구총조사 미시데이터; 권진아(2019), p. 21.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1인가구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전국과 울산광역시 모두 미혼과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사별로 인한 1인가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5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혼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10〉 전국 및 울산광역시 성별 1인 가구의 혼인상태

(단위: %)

구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국	전체	43.8	11.2	29.4	15.5
	여자	41.3	39.7	85.8	50.0
	남자	58.7	60.3	14.2	50.0
울산 광역시	전체	43.0	14.6	24.5	17.9
	여자	30.7	35.1	84.8	51.0
	남자	69.3	64.9	15.2	49.0

자료: 통계청(2019), 2015 인구총조사 미시데이터; 권진아(2019), p. 21.

전국 및 울산광역시 1인가구의 연령에 따른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전국 및 울산광역시의 모두 배우자가 있는 1인가구는 40-5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청년층인 20세 미만, 20대, 30대의 미혼 1인 가구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미혼 상태는 줄어들고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1인가구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전국 및 울산광역시 1인가구의 연령에 따른 혼인상태

(단위: %)

구분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전국	전체	43.8	11.2	29.4	15.5
	20세미만	99.97	0.03	-	-
	20-29세	98.7	1.1	0.0	0.2
	30-39세	87.2	8.3	0.2	4.3
	40-49세	56.3	18.5	1.9	23.3
	50-59세	22.0	23.9	15.8	38.4
	60-69세	8.0	14.5	51.1	26.4
	70세이상	2.0	4.8	87.1	6.1
울산 광역시	전체	43.0	14.6	24.5	17.9
	20세미만	100	0	0	0
	20-29세	98.5	1.2	0.0	0.3
	30-39세	87.5	8.5	0.1	3.8
	40-49세	52.0	21.8	1.7	24.5
	50-59세	17.4	28.4	16.3	37.9
	60-69세	5.7	16.0	51.5	26.8
	70세이상	1.4	5.4	86.2	7.0

자료: 통계청(2019), 2015 인구총조사 미시데이터; 권진아(2019), p. 22.

3) 1인 가구의 생활 환경적 특성

1인 가구의 생활 환경적 특성으로는 주거, 경제 상태, 안전, 건강, 사회참여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인가구의 주거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인가구의 주거 유형은 단독주

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그리고 주택이외로 분류된다. 전국의 경우 단독주택이 47.2%로 가장 많으며, 아파트 29.9%, 주택이외의 거처 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역시 전국추이와 동일하게 단독주택 51.3%, 아파트 33.2%, 주택이외의 거처 6.8%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 5개 구·군별로 보면, 북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단독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북구는 '아파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1인가구의 주거형태를 보면, 전국과 울산광역시 모두 여자 1인가구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1인가구는 '단독주택', '아파트', '주택이외의 거처'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권진아, 2019:23-25).

울산광역시 1인가구는 성별에 관계없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층에 해당하는 20-30대의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거처로 오피스텔, 고시원 등과 같은 곳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 1인가구와 청년 1인가구의 경우 거주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다소 취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독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범죄로 부터의 취약한 부분이 있고, 여성 혼자 거주한다고 할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성 1인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안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표 12〉 전국 및 울산광역시의 성별에 따른 거처 유형

(단위: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전국	여자	44.9	33.8	1.9	9.5	1.8	8.0
	남자	49.5	26.0	1.5	8.8	2.3	11.8
울산 광역시	여자	47.3	38.5	1.6	5.5	2.0	5.2
	남자	54.5	28.9	1.4	4.9	2.2	8.0

자료: 통계청(2019), 2015 인구총조사 미시데이터; 권진아(2019), p. 24.

다음으로 1인가구의 경제 상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인가구의 경제 상태는 주거점유형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 가능하다. 2000년 이후 1인 가구의 점유형태의 변화를 일반가구와 비교하면 '자기 집'인 비율은 1인가구는 30% 이상, 일반가구는 55%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는 2000년 30.0%에서 2015년 16.0%로 14.0p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12.7%p 감소한 일반 가구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보증금 있는 월세'는 2000년 21.2%에서 2015년 36.0%로 14.8%p 증가하여 같은 기간에 9.6%p 증가한 일반가구보다 증가폭이 크다(통계청, 2018:26).

〈표 13〉 1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점유형태별 비율: 2000-2015년

이러한 현상은 울산광역시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울산광역시 1인가구의 주거점유형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보증금 있는 월세'로 46.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36.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기집'의 비율은 전국 34.0%인데 울산광역시는 31.7%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세의 비율 역시 전국 16.0%에 비해 울산광역시의 경우 9.5%로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4〉 전국 및 울산광역시 1인가구 주거점유형태

(단위: %)

구분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관사, 사택 등)
전국		34.0	16.0	36.0	6.1	1.8	6.0
울산 광역시	전체	31.7	9.5	46.1	5.3	0.4	7.0
	중구	32.9	9.6	44.4	6.4	0.3	6.4
	남구	24.0	10.7	53.1	6.3	0.3	5.6
	동구	25.8	10.1	51.0	4.3	0.4	8.5
	북구	36.5	8.6	43.9	3.1	0.2	7.7
	울주군	46.8	7.1	32.5	4.5	0.7	8.5

자료: 통계청(2019), 2015 인구총조사 미시데이터; 권진아(2019), p. 24.

통계청의 2015년의 자료에 의하면 1인가구 취업상태가 54.3%였는데, 통계청의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전체 1인가구 중 61.1%가 취업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1인가구의 취업률이 6.8p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취업자 중 50-64세 중장년층 비중이 26.6%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 57.7%, 여성 42.3%로 남성 취업자가 여성에 비해 15.4%p 높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1인가구의 월 임금수준별 분포를 보면, 100만 원 미만이 11.3%, 100-200만 원 미만이 24.6%, 200-300만 원 미만이 35.7%, 300-400만 원 미만이 17.1%, 400만 원 이상이 11.3%로 임금근로자 1인가구의 35.9%가 200만 원 미만 소득자이다. 취업자 1인가구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53.2%,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가 25.8%, 비임금근로자가 21.0%

로 나타난다.

취업자 1인가구의 직업 분포를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1.9%, 사무 종사자 14.9%, 단순노무 종사자 14.7% 순으로 1인가구 내부에 이질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인가구 전체를 관통하는 경제적 삶의 질과 관련한 문제는 '빈곤'이지만, 1인가구 중 일부는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혼자 사는 삶'을 누리는 '자발적 1인가구'도 있다(통계청, 2018b:83).

울산광역시의 경우 통계청의 2015 인구총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취업상태('주로 일하였음', '틈틈이 일하였음')와 미취업상태('일시 휴직', '일하지 않았음')로 구분하여 1인가구 취업률을 살펴보면 취업상태는 63.1%이고, 미취업 상태는 36.9%로 당시 전국 1인가구의 취업상태 54.3%와 미취업상태 45.6%에 비교하면 울산이 다소 1인가구의 취업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취업상태가 24.6%, 남성은 29.7%로 남성 1인가구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전국에서는 30대 청년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울산광역시에서는 50대 1인가구가 47.6%로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상태의 1인가구는 전국과 울산광역시 모두 70세 이상의 노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진아, 2019: 30).

셋째, 1인가구의 안전문제가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안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된다. 여성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범죄로 부터의 안전과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발생이 매년 증가함으로 안전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범죄로부터의 안전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강지현(2017)의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신체범죄피해와 재산범죄피해, 구거범죄피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범죄피해율은 지역특성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객관적인 범죄피해율 뿐만 아니라 범죄두려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하지은·김지현·김민지(2017)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범죄두려움이 높고, 1인가구 중에서도 1인 여성가구의 두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유형으로는 원룸형 주택에 거주하는 1인가구가 가장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2018년 44.3%, 2019년 44.6%로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증가추세에 있고, 여성 1인가구의 주거형태도 주택 거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범죄피해로 부터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50.9%가 사회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사회 안전 중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은 '범죄 발생'을 꼽았다. 미국 백안관 보고서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스토킹, 성범죄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았을 뿐 아니라, 파트너와 연인이 여성을 살해하는 범죄도 1999년 이래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성 1인가구는 범죄의 희생자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집단이며, 사회의 안전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인식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김정은·정해은·남영주, 2018:466).

다음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또 다른 측면인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있게 되자 서울시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발생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간 반

려동물의 행동에 의해 발생한 화재통계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는데,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한 화재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7건, 2018년 19건, 2019년 9월까지 31건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이후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2017년 대비 271% 증가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론 전년 전체대비 163% 늘었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반려동물에 화재는 총 65건이다. 이 중 반려견에 의한 화재는 3건, 반려묘에 의한 화재는 62건으로 파악됐다. 반려동물이 건드린 물건으로 보면 전기레인지가 64건, 스탠드 전등이 1건이었다. 반려동물이 싱크대 위에 올라가 전기레인지 상부에 설치된 스위치를 밟게 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동아일보, 2019. 12. 4.). 요즘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켤 수 없는 안전장치도 권장을 통해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에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KBS 뉴스따라잡기, 2019. 7. 31). 1인가구의 경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에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1인가구의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강나연·정복미(2018)의 연구에 따르면,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결혼여부 등에 따른 심리상태, 건강행태, 만성질환 진단여부 등의 비교 분석 결과, 1인가구의 경우 다인가구에 비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2주 이상 연속하여 느끼는 우울증, 월간 음주율, 흡연율, 주관적인 건강상태의 나쁜 비율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 1인가구는 여성 1인가구에 비해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 실제 우울증 진단율이 높았고, 여성 1인가구는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1인가구의 식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김수훈(2018)의 연구에 의하면 1인가구의 식생활은 주로 직장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또는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외식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요소이며 생존을 위한 차원을 넘어 인간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성격 형성과 지적 성장 등 정신적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결식율은 타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현대사회 속에서 1인가구에게 식사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섭취하는 음식물의 가격, 영양가는 낮고, 칼로리는 높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찾게 됨으로써 영양 불균형으로 영양부족 또는 영양과잉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식사를 또한 대충하는 등의 식습관으로 다인가구에 비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조건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1인가구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기도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만성질환, 정신건강, 돌봄 등 건강관련 욕구수준이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다섯째, 1인가구의 사회참여에 대해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대개 사람들은 여러 사회활동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가족이 형성된 가구의 경우 혈연으로서의 가족 연결성이 존재하며 종교 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와 연계해 고립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 1인가구의 사회활동도 일반가구와 유사한 특성을 나타낼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표 15〉에 제시된 2015년 기준 1인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76.8%로 전체 인구(20세 이상) 중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인 69.0%보다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 75.0%, 여자 78.3%가 아무런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전 연령층에서 사회활동 참여 비율이 낮았다. 특히 남성 1인가구의 경우 20대와 70대 이상 연령층의 사회활동 참여가 가장 낮았으며,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20대와 30대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사회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를 보면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외로움 등이 1인가구가 직면한 문제라는 결과가 많다. 1인가구의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활동은 공동체와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고 '고립'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보여진다. 1인가구의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역시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 1인가구의 성 및 연령집단별 사회활동 참여율

(단위: %)

구분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남성	참여함	25.0	22.8	25.7	27.2	26.8	24.5	19.6
	참여 안함	75.0	77.2	74.3	72.8	73.2	75.5	80.4
여성	참여함	21.7	19.0	21.4	24.7	28.0	27.2	16.5
	참여 안함	78.3	81.0	78.6	75.3	72.0	72.8	83.5

통계청(2019), 인구주택총조사, 2015.; 한국의 사회동향, p. 84.

좀 더 자세하게 울산광역시 중심으로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에 따른 사회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전국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사회활동 참여 정도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 1인가구 66.2%, 여성 1인가구 72.8%로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6.6p 정도 참여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의 노인 1인가구가 '참여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82.7%로 가장 높고, 다음이 60-69세로 70.5%, 그 다음의 순으로는 20대, 30대가 차지하고 있다. 노인 1인가구의 경우 거동의 불편함, 현직에서 물러난 이후 외부와의 교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1인가구와 큰 차이 없이 참여율이 저조한 현상에는 이유가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취업준비로 인한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여유와 거기에 경제적인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활동이나 네트워크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표 16〉 울산광역시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에 따른 사회활동상태

(단위: %)

구분	사회단체분야	경제 분야	문화 분야	정치 분야	종교 분야	지역 단체	친목 단체	교육 단체	기타	없음
남성	3.3	3.8	9.6	0.4	2.4	0.6	13.4	0.4	0.02	66.2
여성	3.3	0.6	6.1	0.2	5.0	1.2	10.0	0.9	0.0	72.8
20-29세	2.9	3.2	11.3	0.0	1.9	0.2	9.8	0.7	0.0	69.9
30-39세	2.6	3.5	11.0	0.3	1.6	0.3	11.2	0.9	0.0	68.7
40-49세	3.6	3.2	9.6	0.5	2.5	0.7	14.1	1.0	0.03	64.7
50-59세	4.9	2.2	7.4	0.4	5.0	0.8	15.0	0.7	0.02	63.5
60-69세	3.7	0.9	5.2	0.3	5.8	1.6	11.8	0.4	0.0	70.5
70세이상	1.2	0.1	2.9	0.0	4.7	1.6	6.8	0.0	0.0	82.7

자료: 통계청(2019), 2015 인구총조사, 미시데이터

3. 울산광역시 1인 가구의 정책 현황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정부는 1인가구를 중심으로 발생되는 문제 즉 주거, 안전,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의 분야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1월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여 1인가구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1인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6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강원도, 울산광역시의 순으로 1인가구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울산광역시는 2019년 2019년 9월 8일에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다.

1인가구는 보편적인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삶의 질 제고와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합적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는 서울을 비롯한 6개 자치단체(서울, 부산, 세종, 서울 금천, 서울서초, 성남)만 제정되어 있고, 울산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즉 주거, 안전, 경제, 건강, 사회참여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골고루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는데, 울산광역시는 1인가구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성별·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자리, 돌봄/사회적 관계망, 건강, 안전 등에 있어 일자리의 경우 여성,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일자리 유지 및 확보 정책이 실시되고 있고, 돌봄/사회적 관계망 관련 정책은 저소득층, 노인, 한부모가정 등의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전국 대상의 특정 질병(암, 심혈관질환, 치매, 감염병 등)의 정책에 한정되어 실시하고 있다. 안전 영역에서도 재난 및 자연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찾아볼 수 있다(권진아, 2019:56).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전체 1인가구의 복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인 것이다. 1인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하였다(장임숙, 2019:31-32).

1인가구 증가추세와 함께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울산은 1인가구 지원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늦게 제정되었고, 그리고 정책 지원 대상에서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인가구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둘째, 울산의 1인가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남성 1인가구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울산은 지역적 특성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취약한 실정이다. 셋째, 울산은 전국 현황과는 달리 50-59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 전국의 경우 30-39세에 해당하는 1인가구가 가장 많은데 비해 울산은 50-59세에 해당하는 1인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어 중·장년층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Ⅳ. 울산광역시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과제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47년'에 따르면 1인가구 비중은 2047년 37.3%까지 증가해 832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김창연, 2020:27). 울산광역시 역시 2035년에는 1인가구가 30.2%로 주된 가구유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울산여성가족개발원, 2019:211).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노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에 많은 노력을 행해왔다. 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이고 다양한 계층의 1인가구가 양산되고 있고, 지금까지 1인가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은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 시점에서 정부는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하겠다.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인가구의 현황과 성별·연령대·계층별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1인가구라 하더라도 다양한 수요가 있고, 이에 근거한 맞춤형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먼저, 주거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주거와 안전에 대한 부문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개선과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성별에 의한 합리적 대처가 필요한 부분으로는 여성 1인가구에 대한 범죄 피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이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여성안심정책 중 '안심지킴이'정책이 추진 중인데 이러한 정책이 5대 강력 범죄(살인, 절도, 강도, 폭행, 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장재원·이지원, 2019). 또한 서울시는 여성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였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주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여성안심임대주택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공동주택 내부에는 안전을 위해 세 차례에 걸친 방범 설계가 이루어졌고, 외부인의 침입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바로 옆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였다. 검침은 주택 외부에서 처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

한 외부인에 대한 감시망으로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하였으며, 1층 관리실에서 직접 지상 주차장과 계단실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 내부의 안전망도 구축하였다. 각 세대마다 24시간 비상벨과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었다(한승연·강미선, 2018:43-44). 1인가구의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함으로써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사회적 공동체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성별·연령별에 관계없이 1인가구라면 새로운 관심사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의 화재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문제이다. LG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가구별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 관련 2012년의 지출은 2인가구보다 1인가구가 69% 높았다. 혼자 거주하는 여성 가구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는 2인가구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보영(2018)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30-40대 1인가구 대상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반려동물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혼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주인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주인의 부재로 인한 반려동물의 돌봄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이미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쉐어 케어(Share Care)'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동육아를 위해 협동조합에서 순번을 정해 타인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반려동물의 주인도 조합원들과 공동돌봄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가전제품에도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이중 버튼 방식을 접목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 공간 디자인에서도 화재 예방에 대한 고려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가구 대상 화재예방을 위한 수칙 마련과 홍보 및 안내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울산 역시 1인가구 중 노인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빨라지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1인가구의 대다수는 60세 이상이 될 것이다. 노인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와 같은 여러 응급상황의 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상황인식시스템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고독사와 같은 응급상황 에 즉각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존 상황인식시스템에서는 카메라나 적외선 센서 등을 활용하여 사생활 침해 및 주변 환경과의 영향 문제 등이 다소 존재하였으나 새롭게 개발된 상황인식시스템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1인가구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한 예방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김혜리, 2018). 따라서 정부는 민관협력거버넌스를 통해 정부가 어르신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의 고독사 예방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거와 안전 부문만 보더라도 1인가구의 성별·연령별에 따라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의 차별화가 엿보인다. 다시말해 맞춤형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연령대가 어릴수록 소득이 적고 주택구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계층이다. 이들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다. 준공영임대주택의 개발, 기존주택의 매입임대, 노후주거지역의 주택개량을 통한 임대주택확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울산지역은 남성 1인가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대로 보면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40대와 50대 1인가구의 비중이 높고, 산업체에 근무하는

1인가구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사원주택의 공급을 제안해 볼 수도 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 코하우징 형태의 주택공급 시 근로자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직장과 인접하여 거주하려는 경향이 큰 1인가구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시 주택단지를 함께 조성하면 편의성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이주영, 2013:59).

둘째는 1인가구의 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인가구의 소득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저소득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층의 1인가구는 자발적 생활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중·장년층의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취업은 개인에게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으로 볼 때 상당히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될 만큼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 2017년 경기도내 다인가구와 1인가구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1인가구의 11.6%가 빈곤층인 반면, 다인가구는 2.1%만이 저소득층에 해당된다고 보고되었다(김정은·정해은·남영주, 2018:467). 성별로 보면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에 비해 구직활동과 고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수준이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1인가구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긴 하나 다인가구 대비 경제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며,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성별·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울산광역시 일자리 정책은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로 인한 '희망일자리 사업'과 '희망근로 지원 사업', 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일자리 모델 구축 등 모든 대상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사업 추진은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셋째, 1인가구의 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면, 1인가구는 가족구성원이 부재하고 혼밥, 혼술을 주로 하는데다가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이용하다보니 신체적 건강상태가 다인가구에 비해 좋지 않은 상태다. 실제 신미아(2019)의 연구에서는 다인가구와 1인가구의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을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1인가구가 흡연이나 음주 등의 비율이 다인가구에 비해 높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이라고 답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신체적 건강이외에도 정신적 건강에서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우울증 정도, 자살생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는 1인가구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1인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특정질병(암, 심뇌혈관질환, 치매, 감염병 등)의 정책에만 한정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취약계층에 국한되어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인가구의 건강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과 우울증 및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응급 상황 발생 시 도움 요청을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돌봄 타임뱅크'사업이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1인가구 대상 상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마음약방' 자판기와 같은 서비스 제공 등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 보건소를 단위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 생활체육 등 실비의 운동공간 및 시설제고, 만성질환 자기관리 프로그램

실시, 응급상황 시 병원 동행 서비스, 스트레스 관리실 확대 운영 등(문정희 외 11인, 2017:33)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1인가구의 세대 교류를 위한 공유주택 공간 설계를 1층에는 함께 키운 야채와 채소를 마켓형식으로 팔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고. 1층 홀에서 지역주민과 프리마켓을 하거나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민들 간의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커뮤니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공동체 의식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박정환, 2019:74)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인가구의 경우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회적 교류가 줄어들고 이러한 고립된 생활이 우울증을 심화시키고 자살생각을 더욱 잦게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인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V. 결론

1인가구는 이제 더 이상 특이한 주거형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주거 유형의 하나일 정도로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였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1인가구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에 정부의 신축적 대응이 필요하다. 1인가구가 전체가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지만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인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성별·연령별·계층별에 따른 다양한 욕구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근거한 울산광역시의 정책 현황 파악 및 정부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보더라도 1인가구의 특성 관련 한 가지 요인에 관해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과제를 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1인가구가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손길이 여전히 뻗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1인가구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강나연·정복미. (2018).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건강행태에 대한 비교분석, 「전남대학교 생활과 학연구」, 28, p. 123-141.

강지현. (2017).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가구 유형별 범죄피해 영향요인의 비교를 중심으로,「형사정책연구」, 28(2), p. 297-320.
고가영. (2014). 1인가구 증가, 소비지형도 바꾼다, LG경제연구원, 18, p. 9.
고정희. (2019). 서울시 세대별 1인가구의 주거특성 분석 및 정책제언,「부동산연구」, 25(2), p. 67-85.
권미영. (2018). 국내 1인가구 선인여성의 음주행위,「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9(2), p. 87-98.
권진아. (2019). 울산광역시 1인가구 현황 및 가족정책 방향 연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김기태·박봉길. (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 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한국노년학」, 20(1), p. 153-168.
김병석. (2019), 1인 가구의 주거 특성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시행정학보」, 32(1), p. 69-80.
김보람. (2016).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김원종. (2018). 1인 가구의 증가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재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 p. 1-9.
김윤영. (2018). 1인가구 특성과 사회복지정책: 인천지역을 중심으로,「사회보장연구」, 34(3), p. 1-30.
김진영. (2013). 여성 1인 가구 소형임대주택계획을 위한 주거의식과 주거요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4(4), p. 109-120.
김창연. (2020). 나홀로 가구 위한 맞춤형 정책만든다, 공감, No. 538, p. 26-27.
김혜리. (2018). 1인가구 응급상황을 위한 상황인식시스템 구현 및 비즈니스 활용방안, 전남 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 (2007), 비혼 1인 가구의 자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남기민·정은경. (2011).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3(1), p. 257-268.
남승연·정수연(2017). 경기도의 비혼여성 공동체 정책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동아일보. (2019). "반려묘가 인덕션 스위치 눌러서…반려동물 화재, 163% 증가", 동아닷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04/98659540/2).
문정희외 11인. (2017). 부산지역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종합정책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건·김연재(2106). 서울 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 4050 생활실태 및 정책지원방안-노후 준 빈와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개발원.
박미현. (2019). 광역자치단체의 고독사 예방 조례에 대한 연구,「글로벌사회복지연구」, 9(1), p. 86-119.
박정환. (2019). 1인가구의 세대교류를 위한 공유주택 계획안, 홍익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변미리·신상영·조권증·박민진. (2008). 서울의 1인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신동아. (2018). "트랜드 외로움 관리산업 전성시대 '혼자 먹는 쌍쌍바'로도 안 풀리는 외로 움, 어쩌지?" http://shindonga.donga.com/3/all/13/1450466/1에서 검색
신미림·남진. (2011). 서울시 1인가구의 주택수요 예측, 국토계획, 46(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p. 211.
오보영. (2018). 직장인 1인 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공동돌봄 서비스디자인 연구,「한국디자인문화

학회지」, 24(4), p. 222-235.
오유진. (2017). 1인가구, 신 건강취약계층으로의 고찰 및 대응, 한국건강증진개발원 Weekly Issue 제004호, p. 1-8.
유진·한민경. (2018). 1인가구의 범죄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령대별 차이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6(2), p. 85-121.
이경애·조주현. (2013). 서울시 1인가구의 거주지 분포변화에 관한 연구:연령별·성별 분포 변화를 중심으로, 「부동산·도시연구」, 6(1), p. 23-50.
이상. (2018). 새로운 가족형태로서 청년 1인가구의 생활과 가족가치관, 중앙대학교 대학원석 사학위논문.
이순미. (2016). 비혼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변형과 젠더 차이, 「사회과학 연구」, 40(3), p. 1-30.
이영란. (2013). 이슈리포트 생활환경 개선으로 '여성 안전도시 울산'만든다:울산 여성 1인가 구 안전정책 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이정관·김준현. (2013). 서울특별시 독거노인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4(3), p. 191-211.
이재수·양재섭. (2012). 서울시 1-2인 가구 유형별 특성에 따른 주택정책 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주영. (2013). 울산광역시 1인가구 주거실태분석을 통한 1인가구 주택정책방안연구, 울산발전연구원.
이지숙. (2009). 지방도시 독거노인의 거주환경에 대한 개조연구, 「디자인지식저널」, 11, p. 70-77.
임준정. (2019). 라이프스타일 기반 청년층 1인가구 실내주거환경 선호 및 요구특성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민선. (2016).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21. p. 457-493.
장은정·문정민. (2017). 1인가구와 반려견의 공생을 위한 주택사례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 대회 발표논문집, 29(2), p. 205.
장임숙. (2019).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과제: 경남을 중심으로, 2019 한국지방정부학회국제학술세미나논문집.
장재원·이지원. (2019).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발생에 도시환경이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 85-86.
정소이·박준영·김홍주·한지희·김인기·김진철. (2012). 1인가구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주택유형 개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정훈. (2012). 1인가구 주거지의 시·공간적 분포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주현·김주원. (2010). 1인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부동산학 연구, 16(4), p. 33-52.
주혜진. (2017). 대전지역 여성 1인가구의 특성과 정책 현안, 대전세종연구원.
지규현·신상영·권주안·김학렬·이동환. (2010). 1인가구 주택수요 증가의 도시계획적 함의, 도시정보, 도시정보, 33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정보지.
통계청. (2018a).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1인가구의 현황 및 특성.

통계청. (2018b).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및 1인가구 고용 현황, 보도자료, 2019. 6.25.

하지은·김지현·김민지. (2017). 주거침입 범죄두려움과 주거침입범죄 자기보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별 및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3(4), p. 185-204.

한승연. (2019). 주거안심 향상을 위한 공유공간과 공유시간의 특성에 대한 연구: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거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승연·강미선.(2018). 여성안심주택공급을 통한 주거환경 안심의 의미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38(2), p. 42-45.

한지희·윤정슉. (2011). 대학생 1인 가구의 생활패턴 및 주거요구에 따른 대학생 전용 임대 주택 평면계획방안,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22(4), p. 93-102.

호정화. (2014). 비혼과 1인가구 시대의 청년층 결혼가치관 연구: 혼인 및 거주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4), p. 25-59.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욱·김수진.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eck, U. & Beck-Gernsheim. (2001).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N.Y. :Sage

Cohen. L. E. and Felson. M(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p. 588-608, Sage publication.

Sta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Statics on women, Retrieved June 6, 2018 from http://Kostst.go.kr/potal/korea/kor_nw/2/1/index.board.

KBS 뉴스따라잡기(2019). "집 지키던 고양이…전기레인지 화재 주범?", 7. 31일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3254&ref=A

Gyeonggi Welfare Foundation (2017). *One-person households in Gyeonggi-do and policy implications.* Retrieved on May 29 from http://ggwf.gg.go.kr/archives/34040?srch_type=1&srch_word=brief.

Statistics Korea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7). Statistics and women, Retrieved June 6, 2018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130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bSeq=&aSeq=36130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김도희(金度希): 부산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공공정책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갈등관리, 지방행정, 여성행정, 거버넌스와 공공관리 등이며, 최근 주요 논문으로는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한 가족친화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2017), 지방의원유급제 도입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실증분석과 개선과제(2018), 재난예방정책 추진 상의 갈등영향요인 및 수준에 관한 연구(2018), 젠더거버넌스 실현의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2019) 등이 있다(dhkim5090@ulsan.ac.kr).

〈논문접수일: 2020. 9. 9 / 심사개시일: 2020. 9. 10 / 심사완료일: 2020. 9. 21〉

Abstract

Government's Task to Promote Policies Customized in the Era of Single-Person Households: Case Study on Ulsan Metropolitan City

Kim, Do Hee

Along with a continuous increase of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actively respond to promote policies customized in the era of single-person households.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ich administrative demand is emerging due to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which requirements are standing out according to gender and age. In order for government polici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to be effectiv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policies in a comprehensive and customized manner.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terms of changes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demographic features (gender, age, and marital status) and living environment features (residence, safety, economy, health,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then analyzes how the government's customized support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Ulsan is an industrial city, where change varia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due to shortage of jobs and economic depression is large, the portion of single male households is much higher than other local cities, and the rate of women participating in economic activity exhibits the lowest value. Therefore, one may readily conclude that more customized support policies are needed for the government of Ulsan metropolitan city than other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se grounds, Ulsan metropolitan city is chosen as the subject of study.

Key Words: Single-person household, Customized policy, Ulsan metropolitan city, Administrative demand, Residential safety